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篇 (4)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朝齒 第3回 定期總會

- ◇……朝鮮齒科醫師會의 第3回定期總會는 (1948) 5月 24日 서울齒大 강당에서 來賓에 崔昌順 서울……◇
- ◇……市 保健衛生局長, 金喆庸同齒務係長, 서울齒大朴明鎮學長, 朝鮮齒科機材(株)李龍基社長, ……◇
- ◇……朝鮮醫藥新報韓晚相主幹, 朝鮮齒界崔曉峰編輯部長등과 朝齒常務委員, 中央委員 및 各市道代……◇
- ◇……議員, 그밖의 傍聽者등 參席下에 開催하였는데 會順과 出席者는 다음과 같다. ……◇

▲ 會順 = 開會, 開會宣言, 中央委員 및 代議員點名, 愛國歌齊唱, 殉國烈士에 對한 默想, 國旗拜禮, 開會辭, 來賓祝辭, 經過報告, 決算報告, 議長選舉, 討議事項 (가) 豫算案審議 (나) 金配給에 關한 件 (다) 齒科機材配給에 關한 件 (라) 口腔衛生強調週間に 關한 件 (마) 限地齒科醫配置件—慶南, 全南提案 (바) 朝鮮齒科醫師會沿革史編纂件—서울提案 (사) 其他事項, 萬歲三唱, 閉會辭, 閉會.

▲ 出席者 = 常務委員 金溶璫, 徐丙瑞, 李東奐, 金文祚, 崔義鍾, 金鍾玉, 金永昌, 李雲經, 中央委員 및 代議員(서울) 朴明鎮, 趙吳衍, 安炳植, 李有慶, 鄭保羅, 洪思根, 文箕玉, 鄭大燮, 金殷鍾, 李迪柱, 朴榮復, 金漢慶, 李奎明, 丁南鎮, 文洪祚, 李順伊, 李聖民, 趙鋪起, 趙興洙, 姜國器, 朴鍾文, 劉福辰, (京畿) 林榮均, 柳邦燮, 鄭淳慶, (江原) 金準培, 李基完, 沈星玉, (忠北) 趙鎮衡, 金正泰, (忠南) 任青燮, 朴成實, 洪豐植, 方思郁, 金鍾聲, (慶北) 李斗榮, 崔海雲, 郭學台, 金鍾來, 秋章燁, 金鏡泳, 徐永圭, (慶南) 金昌圭, 金淳培, 高相穆, 梁敬煥, (全北) 崔三涉, 田基培, (全南) 盧基燮, 曹珣, 金性度.

上午 10時 30分 徐丙瑞總務로부터 開會宣言 點呼에 이어 總會成立을 宣稱하고 國民儀式을 끝낸다음 金溶璫委

員長의 開會辭, 崔昌順局長, 朴明鎮學長의 來賓祝辭, 徐總務의 昨年 7月 27日부터 今年 5月 23日까지의 詳細한 經過報告가 끝나자 安炳植要請에 依해 <齒科醫療用金配給에 關한 件> 및 <齒科醫療用機材 再割當配給에 關한 件>의 齒醫務課長公文을 朗讀하였는데 그 公文은 다음과 같다.

西紀 一九四八年 五月 十七日

保健厚生部齒醫務課長

朝鮮齒科醫師會會長 貴下

齒科醫療用金配給에 關한 件

首題之件 金配給은 齒科醫師의 齒科醫療上 不可欠할 은 周知된 事實로 解放後 가진 難關을 突破하여 丹滿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第3回까지 配給을 完了하였음에 配給方法에 있어서 均一, 等級等 區區한 論議를 除去하고 本官은 가장 科學的이고 合法的인 齒科醫療에 依한 所得稅及 開業年限等을 參考로 하여 配給하였사오나 第4回齒科醫療用金을 來 6月中旬頃 市及道知事를 經由하여 配給爲計이오니 貴會支會中 數個道齒科醫師會에서는 均一制配給을 道會總會에서 決議한다하오니 今番 開催되

는 朝鮮齒科醫師會 定期總會에서 綜合的決議를 議決하여 5月 31日까지 報告建議하여 주시면 本配給에 參考하겠아오니 如是諒知하시말.

西紀 一九四八年五月二十一日

保健厚生部 醫政局 齒醫務課長

朝鮮齒科醫師會長 貴下

齒科醫療用機材再割當配給에 關한 件

首題之件 西紀 一九四八年二月九日附로 齒科醫療用機材를 朝鮮齒科機材株式會社를 通하여 配給할 時 事情參酌하여 配給期日을 2回나 延期하였으나 尙今受配치 않은者 多數임에 此는 一部誤解에서 起因된 것으로 終結시키고 特히 今番受配치 않은 者에 限하여 再割當爲計이오니 如是諒解하시말.

徐總務의 經過報告에 이어 議長選舉에서 鄭保羅로부터 慶南金昌圭를 推薦하였으나 多數要請으로 結局 金溶禧委員長이 議長에 就任하고 徐總務(財務委員選參으로 代理)로부터 1947年度 決算報告를 하자 滿場拍手로 承認하고 討議事項에 들어가다.

① 豫算案審議 = 朝齒會費每入當 1千圓에 依한 51萬餘圓의 1948年度 豫算案을 上程, 徐總務로부터 그 收入支出의 說明이 있자

安炳植—서울齒科醫師會를 代表하여 말하고자 한다. 豫算案을 보건데 機關紙費가 過大한 듯하니 그것을 縮減하여 每人當 6百圓程度를 希望한다. 서울의 現狀으로 보아 每人當千圓은 至難할 것이다.

鄭保羅—나의 생각으로는 每月 機關紙를 發行하자면 七紙 原稿가 그처럼 없으리라고 믿는다. 發行回數를 줄여서 最少限度로 運營하기 바란다.

金昌圭—慶南으로서도 朝齒會費 縮少를 希望한다.

柳邦燮—8百圓程度가 좋다고 생각한다.

金股鍾—絶對不可欠이 아니면 現狀으로는 過大한 것 같으니 發行回數를 줄이자.

趙鋪起—新開形態의 <朝鮮齒界>보단 雜誌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莫大한 機關紙費는 다른곳에 有效하게 쓰기로 하고 그 代身 <朝鮮醫藥新聞>을 利用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李迪柱—朝鮮齒界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使命이다. 우리의 經濟狀態가 潤澤할 때까지 豫算을 多少減額하여서라도 <朝鮮齒界>를 運營하자.

朴榮復—廣告收入등을 加算하면 那처럼 많은 豫算이 所用없을 것 같은데 大體 <朝鮮齒界>는 어떻게 運營하고 있는가.

金議長—朝鮮機關紙로 發行하고 있다. 그러나 從來에 人件費나 用紙代는 支拂치 않았으며 이 豫算에도 人件費는 없으니 廣告收入을 考慮할 수는 없을 것이다.

崔海雲—財政分科委員會를 만들어 絶對的權限을 賦與하여 討議決定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鄭保羅—6百圓案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니 빨리 可否를 決定하라.

徐總務—지금 計算을 해보니 機關紙發行回數 年12回를 6回로 縮減한다면 6百圓會費로 運營할 수 있다.

는 말에 滿場拍手로 朝齒會費每入當 6百圓을 可決하고 豫算收支面을 修正하기로 하였으며 安炳植提議로 <朝鮮齒界>란 名稱을 改題하기로 했다.

② 金配給에 關한 件 = 李迪柱—金配給을 科學的이며 合法的으로 하였다하나 日帝時代에도 있던 納稅證明書를 添付하라는 것은 不當하다. 나는 原則的으로 均一制를 主張하는 바인데 萬若 不得已 等級制로 할 境遇에는 ABC 3等級 程度를 希望한다.

任胃懽—나는 金配給을 3流로 받은 사람이다. 納稅證明書를 添付하지 않았다고 不公平한 等級査定을 받은 非良心的行政이 들어날 뿐아닌가? 事實 나는 大田에서 患者數를 보든지 納稅額을 보든지 開業年數를 보든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만한 것을 齒醫務當局에서도 모를理 없을터이며 그렇다고 나는 齒醫務當局을 찾아보고 싶지는 않았다.

鄭保羅—元齒醫務課長이 없는데 이런말을 하는 것은 안되겠으나 事實 元課長은 過去에 있어서 <로봇트>였다. 美國人이 시켜서 그렇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朝鮮人이 行政을 全的으로 하게 되니 醫師會와 行政廳과 相議해서 適當히 하게 될 것이다.

任胃懽—鄭保羅의 말은 行政官의 代辯인가. 明言을 바란다.

鄭保羅—行政官의 代辯이 아니라, 徐總務가 朗讀한 齒醫務課長의 公文을 듣고 推測한데 不過하다. 그리고 나는 齒醫務當局과 接觸이 많으나 金配給은 2級이었다.

任胃懽—齒科醫院은 營利的商業行爲가 아니니 等級制에 依한 納稅證明書添付는 排擊하지 않을 수 없다.

金鍾玉—지금까지의 金配給은 稅率制가 아니라 情實配給이라고 본다. 나는 그 證據를 가지고 있다. 稅率制云云하면서 情實配給을 한다면 차라리 均一制가 좋을 것이다.

鄭保羅—各道行政廳에서 金을 받아서 均一制로 하든지 等級制로 하든지 道齒科醫師會와 道行政廳이 相議하여 配給하도록 一任하자.

金議長—齒醫務當局의 意思도 그런것같이 보이었다.

金性度—그러나 漠然하게 各道에 配分하여 거기서 配

給한다면 또다시 情實配給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鄭保羅案에 比率를 決定하도록 附議한다.

文箕玉—서울市齒科醫師會에서 金配給 때문에 臨時總會를 열고 討議할 때에 美國人이 와서 民主主義的으로 當身에 決議대로 해주겠다 말해놓고도 實行을 하지 않았다. 그 美國인들이 아직 가지않고 있으니 우리가 決定해 보아야 헛일이다. 그리고 <申寬書>에 對한 回答文이 元齒醫務課長名義로 醫藥新報에 發表되었는데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으니 朝鮮齒科醫師會에는 와있는가.

金溶璫—아직 接受치 않았으며 어찌하여 新聞에 먼저 發表되었는지 모르는 일이다.

崔發鍾—等級의 差와 限地齒科醫師와의 差를 討議하자.

이때 洪思根은 大聲으로 <金配給의 等級을 定하는 것은 美國人이 아니라 安某, 鄭某, 朴某, 李某등이다>라고 叱叱하듯 외치자 이에 朴溶德 반박하여 會場이 暫時 騷亂했었다.

金議長—元齒醫務課長도 없는데 아무리 過去를 論難하더라도 無意味하다. 빨리 우리 要求만을 作定하자.

結局 各道에 配當하여 配給할 것을 可決하였다.

林榮均—道別의 量的差異를 없게 하는 方法으로 會員頭數에 依하여 均等配當하라.

金昌圭—再請이다.

李迥柱—限地齒科醫師를 包含해서 ABC 3等級으로 하고 等差는 10g으로 하자.

鄭保羅—正會員과 準會員간의 等差만 決定하고 等級은 各道에 一任할 것이다.

金股鍾—正會員과 準會員의 差를 確定하자.

鄭保羅—約 40g으로 하자.

崔三涉—正會員의 C級과 40g의 差를 두자.

드디어 金配給은 ABC 3等級으로 하되 等級差는 10g, 限地와는 C級과 40g의 差를 두기로 可決하자.

方思郁—나는 限地齒科醫師인데 金配給에 있어 配給總數量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正會員과 準會員의 差를 C級에서 40g으로 定한다는 것은 會員간의 分裂을 助長할 念慮가 있다.

고 警告하였으나 아무런 成果없이 다음 討議로 넘어갔다.

③ 齒科機材配給에 關한 件=安炳植要請으로 金溶璫委員長으로부터 齒材會社長과의 折衝經過報告가 있는 뒤를 이어

李迥柱—去般 配給을 서울은 사지 않기로 되었는데 其後 朝齒幹部, 서울市齒幹部, 齒材會社長등이 合席座談하였을때 <우리 會社는 軍政廳代行機關이다. 配合을 받지않는 사람에게는 配給을 停止하겠다>고 齒材會社

李龍基社長이 申明하였으며 <나는 軍政이 撤廢되면 죽을 覺悟를 하고 있다>고까지 暴言이 있었다. 아무리 軍政下라 할지라도 美國사람이 不良한 日本製디스크를 抱合配合하라고까지는 指示하지 않았을 것이다. 日本製品은 密輸入이 아니고는 있을리가 없으니 結局 謀利輩를 助長할 뿐일 것이다. 그래서 李容高厚生部長을 訪問하여 齒材會社李社長말을 한즉 <그런일은 없다>고 李厚生部長은 全部 否認하였다. 軍政을 憑藉하여 日本製디스크로 抱合하는 不當性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갖이라고 絶叫.

鄭保羅—齒材會社長이 參席하고 있으니 簡單히 앞날의 抱負와 計劃을 말하기 바란다.

李龍基社長—李迥柱말에는 무엇이랴 말할 수 없다. 謝過하는 바이다. (拍手) 앞으로 朝齒의 意思를 尊重해서 指導를 받아 잘하겠다. (前提하고 齒材會社의 沿革史를 興奮滿面에서 株主總會席上과 같이 長廣舌하니 議場에 하품이 떠돌고 이곳 저곳에서 私談이 벌어졌다)

文箕玉—抱合配給의 見解如何

李龍基—지금까지의 配給品은 注文品이 아니고, 一線에서 美軍이 쓰던 剩餘品이기 때문에 軍政下 이월수 없이 그리된 것이다.

崔三涉—道에서 하는 말이 齒科醫師는 二重配給을 받는다고 藥品配給을 中止하고 있으니 藥品을 齒材會社에서 全的으로 받느냐 從前대로 道에서 받느냐를 決定하자 하는 말에 忠南, 全南에서도 그런 現狀이라고 말하자 李龍基는 <齒材會社에 藥品配給할 것이있다> 말하였으나

金鍾玉—藥品은 藥務局에서 一元的으로 받기로 하자.

金議長—藥品은 從前과 같이 藥務課에서 받도록 建議하겠다.

는 말을 拍手로 可決하고 끝으로

任靑嫻—빛나는 良心的인 民族的 正氣에서 厚生部長이나 齒醫務課長이 일했으나 末端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썩어서 그런지 몰라도 藥配給에 對해서 不當한 일이 많았으니 朝鮮齒科醫師會는 厚生當局에가서 各道藥配給統計를 閱覽하여 強力한 態度로 圓滿한 配給을 推進하기 바란다.

④ 口腔衛生強調週間に 關한 件=金文祚로부터 昨年總會에서 前記週間을 5月 5일부터 하기로 可決하였으나 南朝鮮選舉關係로 從前과 같이 6月 9일부터 同 15日까지를 週間으로 하게된 理由說明과 週間中の 行事를 多彩롭게 할 것을 要請하고 各道及市에 傳達할 宣傳포스터를 配付하였다.

⑤ 限地齒科醫配置件=限地齒科醫師는 原則的으로 無

醫村에 配置할 것임에 不拘하고 都市配置를 한 齒醫務 行政을 非難하면서 今設 또 限額가 나왔으니 前轍을 밟지 않도록 建議하라고 慶南, 全南이 要請하여 可決.

⑥ 朝鮮齒科醫師會沿革史編纂件=安炳植으로부터 提案理由說明이 있는 다음 李有慶의 編纂委員選出論과 鄭保羅의 特別研究委員會一任論이 있었는데 좀더 研究善處하기 爲해 保留할 것을 可決하였다.

⑦ 其他事項 (가) 醫療機關에 特別配電交涉件(安炳植提案) 電氣會社當局에 交涉하기로 可決 (나) 世界齒科聯盟加盟件(鄭保羅提案) 加盟하기로 可決 (다) 朝鮮醫學協會加盟件(趙吳衍提案) 保留되었고 끝으로 趙吳衍으로부터 서울齒大同窓會 開催時間迫頭로 學會를 中斷한데 對한 謝過가 있는 다음 閉會에 들어가려고 할지음에.

崔海雲一이번에 任員改選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質問에 會則見解差異로 質疑應答이 展開되어 議場이 騷亂하였다가 結局 現任員 全員을 別室로 보낸後 代議員決議로서 現任員이 辭任한 것으로 假定하고 그 再任을 要請하기로 되어 金昌圭臨時議長이 그 趣旨를 傳達한後 滿場拍手裡에 退場했던 全任員의 入場을 歡迎한다음 金昌圭先唱으로 萬歲三唱을 하고 下午 4時 35分 閉會하였다.

第2回 學會와 總會

朝鮮齒科醫學會의 第2回總會 및 學術講演會는(1948) 5月 23日 上午 9時半부터 서울齒大講堂에서 京鄕各地方 會員 約 140名 參席下에 開催하였는데 먼저 10數題의 講演이 있는 다음 總會에 들어가 國民餞式을 하고 學會 長代理趙吳衍의 開會辭, 文教部次長, 厚生部次長등의 來賓祝辭, 會務報告, 議事등을 마친後 다시 講演과 記念攝影이 있었으며 이날 서울齒大同窓會 開催時間關係로 下午 4時半 10數題의 講演을 남기고 閉會하였다. 演題는 다음과 같으며 ○記號는 演者이다.

1. 濾胞性齒牙齦腫의 一例
金重基 (서울醫大 第1病院齒科)
2. 唾液瘻의 一治驗例
安炳珪 (서울齒大外科)
3. Ephlis의 文獻上考察
金東順 (서울齒大病理)
4. 珞珈眞珠의 二例
方慶孫 (서울醫大 第1病院齒科)
5. 珍稀한 硬性齒牙腫의 一治驗例
李春根 (서울齒大外科)
6. 페니시린의 口腔外科의 應用

7. 間接인레이 簡易調製法(鄭保羅考察)에 關하여
金朝桓 (서울齒大補綴)
8. 下顎突出矯正患者의 一治驗例
李有慶 (서울齒大保存)
9. 에크리릭 짜켓트크라온調製法에 關하여
沈泰錫 (서울齒大補綴)
10. 人類齒牙의 形態學的及築學的 考察
宋在迪 (서울齒大補綴)
11. 不良架矯齒에 因하여 發生한 口腔癌의 一症例
李春根 (서울齒大外科)
12. 半間接인레이調製法
金洙哲 (서울齒大保存)
13. 上下顎咬合狀決定法及中心位咬合決定法에 關하여
鄭保羅 (서울齒大補綴)
14. 齒周組織炎症에 對한 生物學的乃至 病理學的 私見
襄珍極 (首都女醫大)
15. 所謂齒槽膿漏病에 對한 노이만氏手術法에 對한考察
襄珍極 (首都女醫大)
16. 臨床上韓人의 顎路傾斜度 40例에 關하여 (하노咬合器에 依한) 李有慶 (서울齒大保存)
17. 顎骨骨折의 合理的副木固定法 (李春根考案)
李春根 (서울齒大外科)
18. 口腔繫帶와 義齒床維持와의 關係에 關하여
○許泰雲 鄭南熙 (서울齒大補綴)
19. 上顎에 發生한 肉腫의 二治驗例
金用瑄 (서울齒大外科)
20. 吃音(말더듬이) 矯正에 關한 理論的 檢索及實驗
金庚煥 (서울醫大 第1病院齒科)
21. 口腔外科問題에 關하여 Howard Mlaylor 中佐
(美軍34病院 齒科外科部長)
22. 아말감充填法에 關하여
William J. Hunt 少佐(美軍12病院 保存齒科長)
23. 補綴學的 顔面整形에 關하여 (幻燈說明)
Elmerhioman(美軍24軍團補綴齒科科長)
24. 異種金屬에 갈바니 電流의 實驗的研究(其2)
金永昌(서울醫大 第1病院齒科)
25. 顎骨切除術에 關한 考察
吳在仁(서울齒大外科)
26. 魚類齒牙 研究의 其一端
金永昌○金周煥(서울醫大 第1病院齒科)
27. 원피스鑄造義齒調製法에 關하여
○李永玉 鄭保羅(서울齒大補綴)
28. 雙生兒14例에 있어서 發育狀況及口腔所見을 主로 한

類似性

○朴扶榮 金文祚(서울醫大衛生)

29. 顎及口腔附近에 發生하는 急性疾病進行經過에 對한 餘의 考察

李春根 (서울齒大外科)

30. 신세틱 포세렌의 코크라운폼의 使用에 關하여

金萬壽 (서울齒大保存)

31. Actinomykosis의 治驗例

○徐永圭 李烈熙 (大邱醫大)

32. 江原道一溫泉村의 地方病性斑紋齒

金文祚 (서울齒大衛生)

33. 無齒顎機能印像法(鄭保羅考察)에 關하여

張完植 (서울齒大補綴)

34. 稀有的 經過를 取한 上顎癌과 末梢性癌을 疑心나게 한 特發性潰瘍性口內炎

潘泰攸 (議政府)

35. 齒牙와 Vitamin

盧光郁 (서울齒大補綴)

- | | | | | | | |
|-----|-----|-----|-----|-----|-----|-----|
| 許泰雲 | 宋在迪 | 車文豪 | 安炯珪 | 扈鼎鎮 | 金永昌 | 金重基 |
| 金周煥 | 高相穆 | 金朝桓 | 鄭樂淵 | 金溶瑤 | 徐丙瑞 | 安炳植 |
| 潘泰攸 | 方思郁 | 崔冕鏞 | 柳邦燮 | 金洙哲 | 王寅根 | 任胄燮 |
| 金淳培 | 鄭保羅 | 張完植 | 朴琦用 | 白蓴濟 | 徐永圭 | 李有慶 |
| 文洪祚 | 李東燮 | 趙尙伯 | 金貞奎 | 金昌圭 | 姜國馨 | 李鍾爽 |
| 方河晏 | 申學均 | 安基和 | 李昌鎔 | 韓秉周 | 趙鋪起 | 襄珍極 |
| 李東煥 | 文箕玉 | 田基培 | 金有鎮 | 韓東喆 | 崔正燾 | 金遠翠 |
| 崔義鍾 | 車尙駿 | 金永龍 | 朴榮復 | 劉時學 | 李恩惠 | 李迪柱 |
| 鄭鍾淵 | 劉福辰 | 池憲澤 | 金鍾來 | 李股順 | 盧東鍵 | 李應高 |
| 李聖民 | 白洛水 | 鄭淳慶 | 尹文重 | 邊光周 | 金股鍾 | 尹雲祥 |
| 李春載 | 崔尙烈 | 朴鍾文 | 朴鎔德 | 金福德 | 金貞姬 | 趙容辰 |
| 鄭用國 | 李雲經 | 李斗榮 | 秋章燁 | 金鏞泳 | 郭學台 | 盧性允 |
| 丁南鎮 | 張元仁 | 金萬壽 | 金永淳 | 李世德 | 朴容福 | 金性度 |
| 鄭三模 | 金準培 | 金致源 | 盧基燮 | 崔海雲 | 沈星玉 | 盧熙瑞 |
| 鄭大燮 | 安正浩 | 朴正湜 | 宋善榮 | 文東先 | 洪豐植 | 金鍾聲 |
| 吳在仁 | 朴應基 | 金鎮鎬 | 金淵泰 | 廉潤澤 | 金 煥 | 洪鍾聲 |
| 薛潤東 | 朴永完 | 李順伊 | 劉淳慶 | 李煥昌 | 吳應瑞 | 韓宅東 |
| 尹信鉉 | 高尙珣 | 金漢慶 | 金庚煥 | 朴扶榮 | 金文祚 | 朴三壽 |

(차호연제는 각도총회)

전북·충북·충남·경북·전남·경기·순위임)

朝鮮齒科醫學會 第2回 總會 및 學術講演會
參席者는 다음과 같다. (出席順)

朴明鎮 趙昊衍 朴道言 李春根 李永玉 金東順 沈泰錫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 賣買 · 修理 · 配達

瑞 一 齒 材 商 社

朴 陽 淳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6의 24

電話 (22) 7 2 7 5